

慶州博物館所藏

動物刻畫長頸埴

金 元 龍

I

新羅土器中에는 刻線畫로 動物·人物 등을 그린 例가 間或 있고 京都大學所藏의 人獸畫壺①、國立博物館所藏의 畫馬埴②、日人 伊藤藤太郎所藏의 人物畫埴③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土器의 그림들은 新羅土器에서 表面을 裝飾하려는 幾何學的 線文과는 달리 그림이 內包하는 觀念的·象徴的 意義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 分明하며 따라서 그러한 畫文 土器 自體가 特殊한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④

II

여기 紹介하려는 一例는 慶州博物館 所藏의 動物文長頸으로서 一九五六年 慶州市 古物商 昔氏로부터 購入한 것이라 한다.
 高四一 cm、口徑 一七·五 cm、腹徑 三五·二 cm의 有脚長頸埴이며 購入當時는 頸의 거의 折半과 脚臺의 折半이 破失되어 있었으나 韓國美術二千年展 出陳을 위해 完形으로 復原修理한 것이다.

頸部는 口緣에서 二·五 cm 되는 位置에 한줄기 突帶를 돌리고 그 위는 無文、그 아래部分은 肩部와의 接續部까지 全面에 斜格文으로 장식하고 있다. 器身은 段이 없는 球形이며 肩部 上端에서 垂直幅 약 七 cm 되는 橫帶에 다섯마리의 말을 刻畫하였고 그 아래 垂直幅 八·四 cm 部分에는 말 네마리, 사슴 한 마리, 개 또는 호랑이 두마리를 그리고 있어 器身의 三分之二面積이 動物畫로써 占領되고 있다. 脚臺는 高 六·三 cm、底徑 二五·二 cm의 二段透孔式으로 全體 器形은 매우 安定된 比率과 形態를 가

지고 있다.

이 長頸埴의 年代는 新羅土器의 仔細한 編年이나 形式分類가 되어 있지 않아 確實히 알 수는 없으나 義城 塔里 古墳 第1 柳出土 土器⑤ 따위의 初期新羅土器보다는 發展된 形式이면서 한편 昌寧三十二號墳에서 나오는 따위의 口緣部가 發達한 後期形式⑥ 보다는 앞서고 있어 大體로 新羅土器中期 即 六世紀頃의 土器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 土器가 어디서 出土한 것인가는 알 수 없으나 形態나 胎質로 보아 洛東江以東의 所謂 新羅中心群形式에 屬하는 것이 分명한데 좀더 想像이 許可된다면 頸部와 脚部가 크게 破失되어 있는 것이 積石木柳墳에서 나오는 土器의 例들을 連想시키며 그러한 推測이 맞다면 積石木柳墳地帶인 慶州 地方의 出土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刻畫文土器는 모두 新羅中心群에 屬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刻畫文土器가 나오지 않는 代身 各種 異形土器가 많이 나오는 洛東江以西의 伽倻土器群과 對照되는 新羅土器의 한 特色이라고 해도 과언을 것 같다.

III

그림은 上段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刻畫로 된 말 다섯마리인데 크기는 길이가 一五~一七 cm、高가 七~九 cm 정도이고 모두 向右側을 향해 달리고 있는 듯하여 앞다리가 벌러지고 꺾였고 꼬리도 뒤로 펴고 있다. 그림은 뾰족한 꼬챙이같은 것으로 단숨에 그어서 그린 것이며 눈, 코, 입 또는 말굽은 省略되어 있다(圖 3·4). 그러나 귀·갈기는 表示되었고 그것이 꼬리와 함께 말에 動感을 주고 있다. 한편 몸은 목에서부터 궁둥이까지 斜格線 또는 平行斜線으로 메구워졌고 궁둥이 上面에는 三~四개의 나뭇가지같은 것이 꽃은 것처럼 세워져 있다. 이 馬身의 線文은 사슴에서도 볼 수 있으며, 動物의 털을 나타내거나 胴體의 量感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分明하다.

한편 말의 臂上에 세워진 立飾은 高句麗古墳壁畫의 例로 보아 特別馬裝에 裝着되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圖(5)는 高句麗鎧馬塚의 壁畫의 一部分인데 두 사람의 馬夫가 全身을 甲衣로 盛裝한 말을 끌고 가고 있으며 말은 머리에 큼직한 飾帽을 쓰고 몸全體에는 馬甲을, 갈기



圖1. 動物刻畫長頸罍(慶州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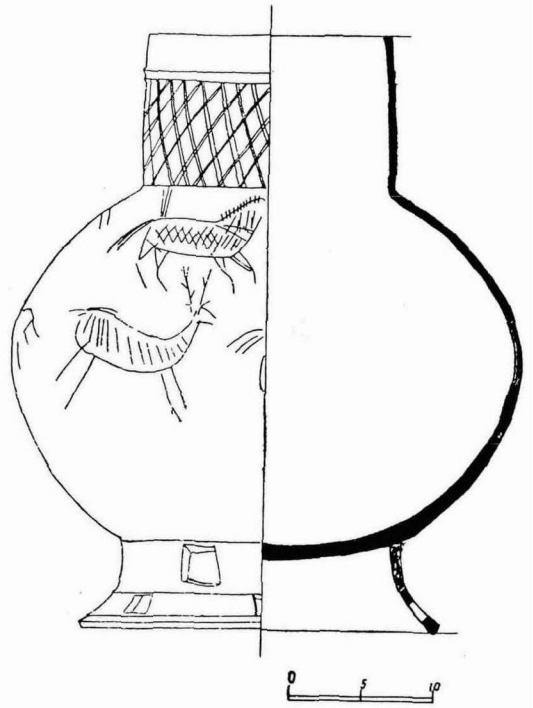


圖 2. 動物刻畫長頸罏實測圖

部分과 鞍裝에는 紅色布를 덮였으며 臀上에는 여러개의 막대기에 黑褐·朱·綠·粉紅色의 三叉形飾을 매달은 立飾을 꽂고 있다. 그리고 鞍上에는 人物이 없으나 馬夫 앞에는 「家主着鎧馬之像」이라는 墨書가 있어 그림은 死亡한 主人公이 特別히 盛裝한 馬를 타고 靈界로 旅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믿어지며 臀上에 꽂은 立飾은 그러한 神馬로서의, 또는 魂駕馬로서의 性格을 表示하는 儀禮의인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 高句麗의 「鎧馬」의 경우로 보아 여기 新羅土器의 畫馬에 나타난 臀上의 立飾도 馬甲 위에 꽂은 神馬의 標識로 생각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말들도 모두 靈界旅行用的 「鎧馬」들을 나타낸 것이고 馬身에는 따로 그려지지 않았으나 이 말들은 鎧馬塚壁畫에서 본 말들과 같이 特別馬裝으로 盛裝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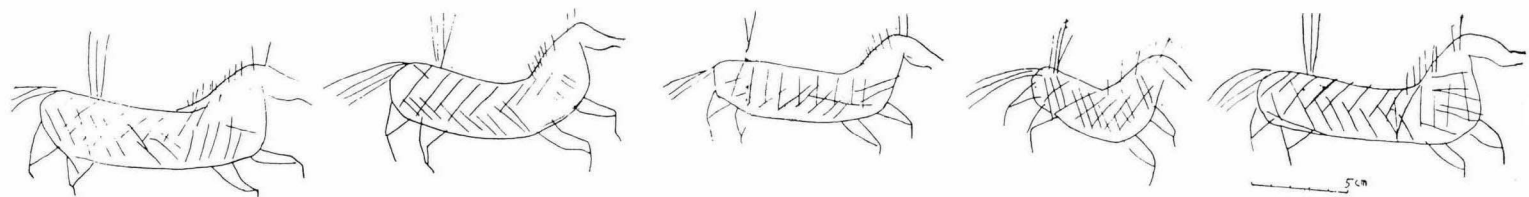
下段의 그림은 역시 向右走하는 立飾꽂은 말 네 마리와 卍이 난 사슴 한 마리, 그리고 개인지 호랑인지 두 마리, 合七마리의 動物이 橫列하고 있다(圖 6·7). 말의 身長은 十四~五cm로서 上段 것보다 작아지고 있고 그림 自體도 더 粗略하게 되어 있으나 臀上의 立飾은 꼭 같으며 그 性格은 上段馬들과 같다.

사슴은 四肢가 모두 가는 一線으로 길게 표시되었고 역시 길고 가는 水平으로 뻗은 꼬리와 함께 빠른 速度로 달리고 있는 모습을 效果 있게 나타냈다고 하겠다. 사슴은 古代 시베리아系 住民의 널리 崇尚하던 動物이며 알타이山中의 파지리크墓에서는 殉葬된 말에 馴鹿의 面을 씌워 말에 대한 鹿格의 賦與가 企圖되고 있기도 하다. ⑦우리나라서는 新石器時代以來로 사슴을 많이 잡아 먹었고 金海時代의 刀子柄이 鹿角을 이용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나 古代韓族의 崇鹿思想을 처음으로 明確하게 나타낸 것은 新羅의 金冠이다. 다만 新羅人들이 사슴에 대해서 어떠한 神格 또는 性格을 주고 있었는지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一般의 生命과 關係되는 靈的動物로 看做되었을 것은 新石器時代以來의 사슴과 사람의 關係, 現在까지 끌어오고 있는 鹿角·鹿血에 대한 珍重傳統 등으로 可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土器에 사슴이 그려진 것은 國立博物館藏의 다른 新羅土器罏에 立體鹿形이 附着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뜻이 普通 그릇이 아니고 特殊用途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 개 또는 호랑이로 본 四足獸는 두 마리 모두 두 귀가 서 있고 긴 꼬리가 위로 뻗었고 四肢는 一線의 가는 것에 새발처럼 趾가 갈라졌는데 그것이 三趾인 것이 特異하다. 얼핏 보기에는 짓고 있는 개 같기도 하나 크기가 말이나 사슴과 같은 것이 異常하고 또 발이 갈라져 있는 것도 개로서는 이상하다. 그래 발이 갈라진 것이 발톱이 무서운 짐승이라는 것을 強調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이것은 호랑이로 보는 것이 妥當한 것 같고 그러한 推測이 可能하다면 山獸의 王格인 虎를 역시 靈物의 하나로서 여기 사슴이나 神馬와 함께 配置하는 것은 充分히 理解되는 바이다.

IV

결국 이 土器에 그려진 動物들은 모두 一種의 靈的 存在이며 특히 말의 경우 그림이 死者의 魂이 타는 特殊한 馬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動物畫土器는 普通 쓰이는 日常容器가 아니라 副葬品으로서 특



—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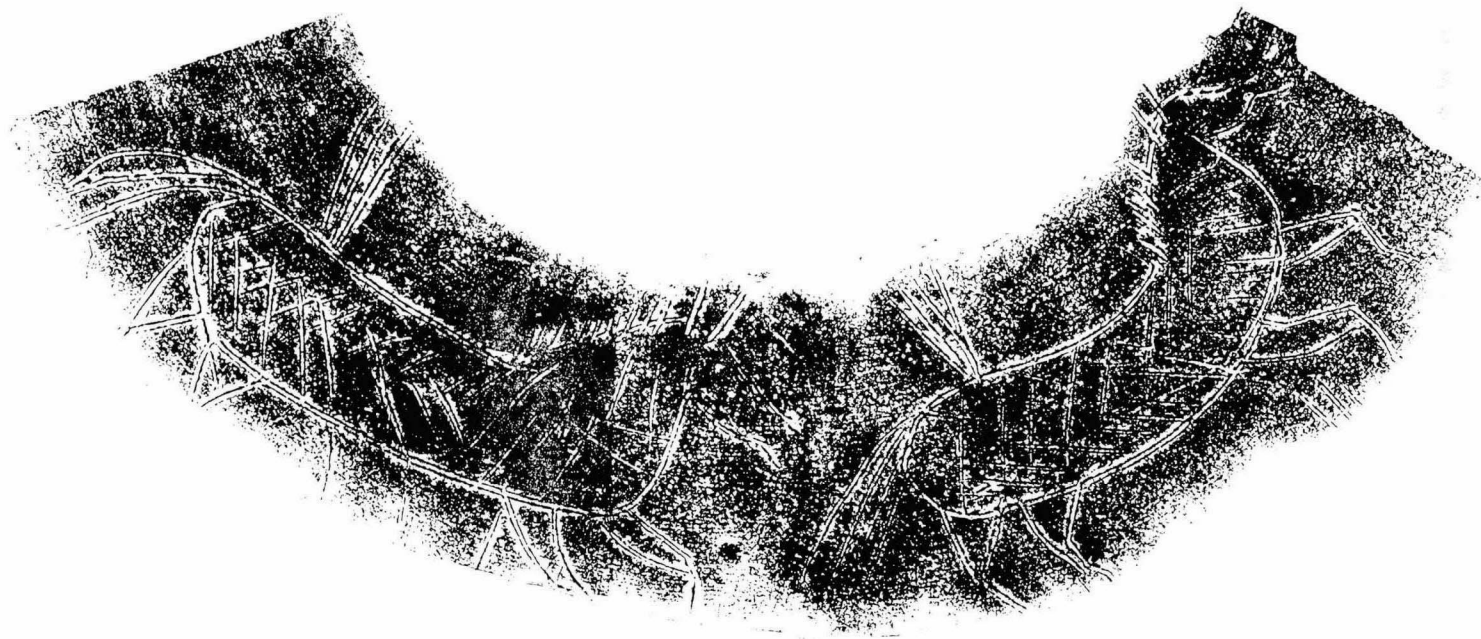


圖 3. 4. 土器上段馬圖與拓本

別히 만들어졌거나 神殿·魂殿 따위에서 쓰이던 特殊器였다고 믿어진
다. 다만 이러한 畫馬土器가 魂駕用的, 그러한 目的의 것이라면 新羅古
墳에서는 墓마다 發見되어야 할 터인데 至今까지의 例로 보면 極히 制限
된 稀貴한 存在로 남아 있다. 或是 身分, 地域 등 여러가지 制約이 그러
한 畫馬土器의 製作이나 使用에 加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現段階로서는 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何如든 다른 畫馬土器에서는 볼 수 없었던 特殊한 馬裝飾立이
이 土器 그림에 나타나서 말의 性格 등에 關係 좀더 좁혀 들어갈 수 있
었던 것은 多幸이며 이로 더 많은, 確實한 資料의 出現을 바라는 바이
다. (七三、五、十三)

註

- ① 今西龍「新羅新代之土器に彫刻せる神話」全氏『新羅史研究』(서울 一九三
三) pp. 559~565
- ② 목이 없어진 圓底甕이며 胸部以上에 人物과 各種 怪常한 動物들이 刻線으
로 그려 있다.
- ③ 「博物館陳列品圖鑑」第十輯(서울 一九三七)所掲、有蓋長頸埴이며 甕경에
三、肩部에 五의 走馬가 그려 있다.
- ④ 「朝鮮古蹟圖譜」三卷 圖版三七四、三七五、長頸埴의 頸部에서 肩部에 걸
쳐 人物과 龜、四足獸가 그려 있다.
- ⑤ 拙稿: 「新羅人形文長頸埴」美術資料 第一輯(1960. 8) pp. 13~14
- ⑥ 「義城塔里古墳」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書第三冊(一九六二年)
- ⑦ 拙著: 「新羅土器의 研究」(서울 一九六〇) p. 11 및 圖版 31 參照
- ⑧ Jetmar, k., "The Altai before the Turks" BMFEA No. 23 (Stock-
holm, 1951) pp. 135~223

追記

本文執筆에 미쳐 失念하고 있었으나 馬圖의 意義에 對해서 丁仲煥교수는
五馬圖例二器 國博 및 東亞大藏을 들어 그것이 「部制과 關連된 것에서 出
寫하여 首品에까지 相關되어진 것으로 理解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丁仲煥 「新羅馬形文土器—馬形文의 起源的 考察」古文化 三(1964年
10月) pp. 40~43



圖5. 高句麗鎧馬塚壁畫의 鎧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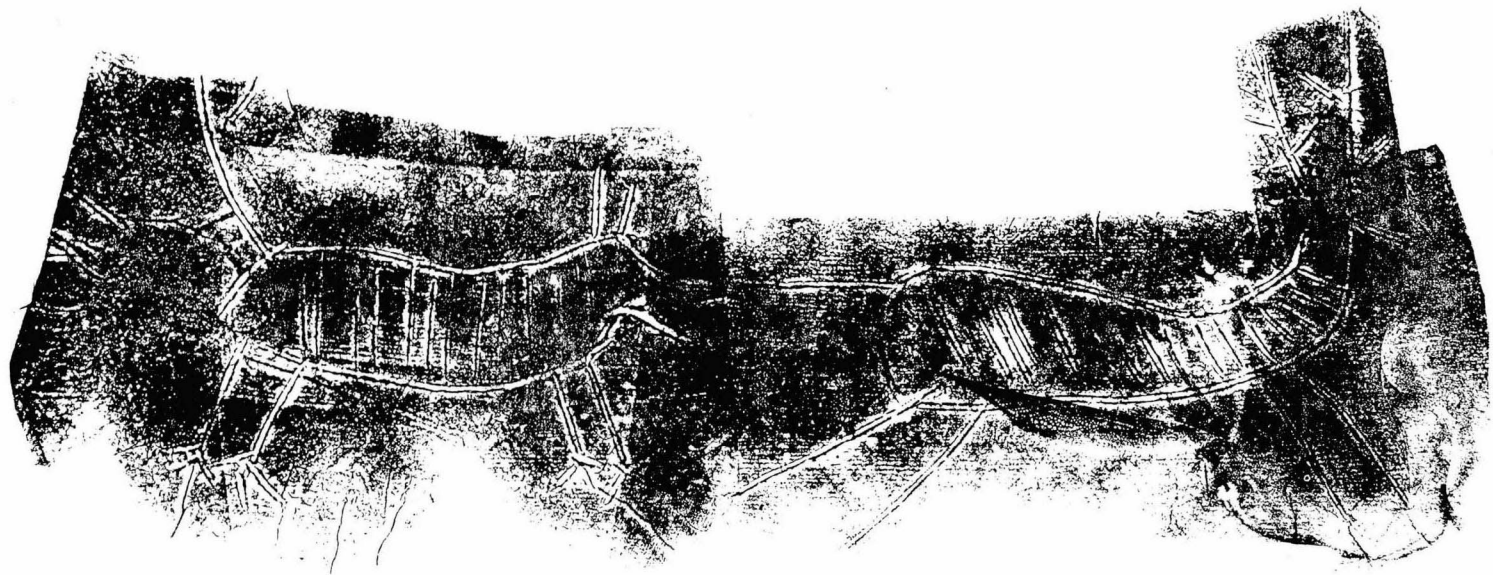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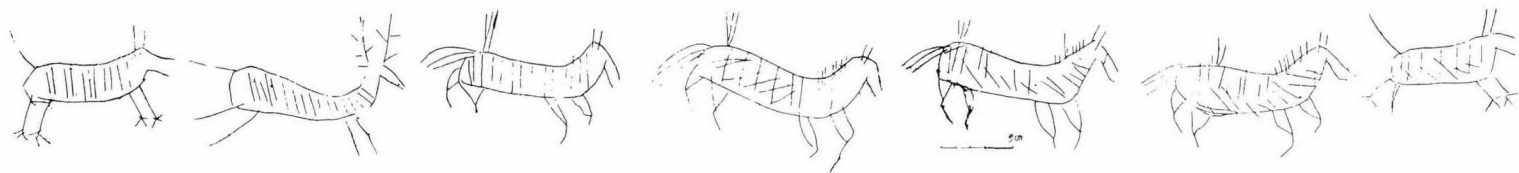


圖 6. 7. 土器下段의 鹿과 虎圖 및 拓本